

# 농협 조합장 선거 앞두고 유령 조합원 판친다

### 광주 390명·전남 6473명 등 6863명 적발... 전국 13% 비중 10년간 감소 추세였지만 올해 2000명 늘어... 실태 파악 시급

내년 3월 전국 동시 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올해 광주·전남지역 농협 무자격조합원이 6800명 넘게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전남 농협 조합원은 최근 10년간 해마다 감소 추세였지만 선거 직전 해인 올해 조합원이 2000명 넘게 늘었다 '가짜 조합원'에 대한 관리가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10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어기구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농업협동조합중앙회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광주·전남 무자격조합원은 광주 390명·전남 6473명 등 6863명으로, 전국 무자격자(5만3020명)의

12.9% 비중을 차지했다.

무자격자 등록 유형을 살펴보면 두 지역 모두 조합원 자격을 잃은 사례가 광주 80.3%(313명)·전남 78.9%(5107명)로 가장 많았다.

조합원이 사망하면서 자격을 잃은 비중은 광주 15.9%(62명)·전남 16.7%(1083명)로 뒤를 이었다. 다른 지역으로 이주한 조합원은 광주 9명(2.3%)·전남 166명(2.6%)이었는데, 전남지역이 주 조합원은 전국 16개 시도 가운데 가장 많았다.

광주·전남 무자격자 중 조합에서 탈퇴한 인원은 광주 252명·전남 4745명 등 4997명으로, 나머지

1866명(27.2%)은 무자격 상태로 조합에 남아있는 상태다.

지난해 말 기준 광주·전남 무자격조합원은 광주 264명·전남 8237명 등 8501명으로, 2회 조합장 선거가 있었던 지난 2019년 7873명(광주 332명·전남 7541명)보다 8.0%(628명) 늘어났다.

조합장 선거가 직선제로 개편되면서 투표권을 지닌 조합원의 자격은 선거 때마다 논란이 되고 있다. 조합원 명단이 제대로 정비되지 않은 채로 선거를 치르면서 곳곳에서는 선거 무효 분쟁이 일어나기도 했다.

농협협동조합법 제26조에 따르면 조합원만 조합장 선거에 참여할 수 있다.

내년 조합장 선거(3월8일)를 5개월 앞두고 과열 조짐을 보이는 가운데 광주·전남 농협 조합원 수가 10년 연속 내리막길을 걷다 올해 처음 반등

했다.

10년 전인 2012년 말 지역 조합원 수는 광주 2만3207명·전남 34만7138명 등 37만345명이었지만, 지난해 말에는 30만명 선에 턱걸이하며 10년간 연평균 7247명씩 감소해왔다.

올해 9월 말 기준 지역 농협 조합원은 광주 2만2760명·전남 28만4411명 등 30만7171명으로, 지난해 말 30만5123명(광주 2만1967명·전남 28만3156명)보다 0.7%(2048명) 증가했다.

어기구 의원은 "농협 선거 때만 되면 이른바 '유령 조합원'이 급증하고 있으며 무자격조합원 선거 참여는 농협의 운영과 의사결정, 농정마저도 왜곡하게 된다"며 "무자격조합원에 대한 실태 파악 및 정리와 더불어 조합원 자격심사를 엄격하게 진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 "하루 우유 2잔, 건강 2배" 전남농협 소비 촉진 캠페인

농협 전남지역본부부는 최근 지속 가능한 낙농산업을 위한 국산 원유 소비기반 확대를 위해 '하루 우유 2잔! 건강 2배!' 캠페인을 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국산 우유 자급률을 높이고 특히 흰우유의 소비 촉진에 이바지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난해 말 기준 우유 자급률은 45.7%로 최저치를 기록했다.

농협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국내 유제품을 포함한 우유시장 소비량은 2012년 335만9000t에서 지난해 444만8000t으로 132% 증가했다.

같은 기간 수입산 물량이 124만8000t에서 241만4000t으로 2배 가까이 늘어 국내 우유시장의 자급률은 62.8%에서 45.7%로 17.1%나 하락했다.

박서홍 본부장은 "신선한 국산 우유를 많이 애용해 달라"고 당부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송프로가 커피차 씽니다. 광주은행 송종욱(가운데) 은행장은 최근 동구 대인동 본점 앞에서 직원들에게 최근급 간식과 커피를 나눠주고 이야기를 나누는 '송프로와 함께 하이파이브' 커피차 행사를 진행했다. <광주은행 제공>

## 광산업진흥회, 독일 건축조명박람회서 계약 성과

### 340만 수출상담·50만달러 계약

한국광산업진흥회는 독일 건축조명박람회(Light+Building 2022)에서 공동관을 운영해 340만 달러 수출상담과 50만 달러 수출 계약 성과를 달성했다고 10일 밝혔다.

코로나19로 4년 만에 개최된 이번 박람회는 독일 프랑크푸르트에서 지난 2일부터 6일까지 열렸다.

전세계 46개국 1500여개 업체가 참가, 광융합 조명 산업의 세계 시장을 파악할 수 있는 국제적인 행사로 꼽힌다.

진흥회는 이번 박람회에서 국내 광융합산업체 9개사와 공동관을 운영했다. 참가 기업은 스마트

조명제어시스템, 건축물 광상문 무인로봇 등 제품으로 한국 중소기업의 제품과 솔루션을 소개해 광융합 조명 및 광융합 관련 해외 바이어들과 적극적인 상담과 계약 관련 협의를 지원했다.

이밖에 진흥회는 매년 약 150개사를 해외시장 진출에 지원하고 있으며, 5개의 해외 전시회에 공동관, 광융합 조명, 광의료·바이오 등 관련 공동관을 구성해 지원 중이다.

이번 박람회 참가를 통해 발굴한 독일 현지 해외 바이어는 다음 달 22일부터 23일까지 2일간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개최하는 '2022 국제광융합산업전시회 및 컨퍼런스'에 초청해 지속적인 수출계약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박기용 기자 pboxer@kwangju.co.kr

## 집값 급등때 주택연금 증도해지 2년 연속 증가

### 상반기 광주 32건·전남 19건

광주·전남지역 주택연금 증도해지와 해지 건수가 2년 연속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후 소득 보장의 대안으로 꼽히는 주택연금 해지가 늘어나는 건 아파트 가격이 크게 오르면서 집을 담보로 연금을 받느니 집을 팔아 시세차익을 보는 게 더 득이라는 선택이 작용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10일 국회 정무위원회 김희곤 의원(국민의힘)이 한국주택금융공사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기준 주택연금 지역 증도해지 건수는

광주 32건·전남 19건 등 51건으로 집계됐다.

광주·전남 증도해지 건수는 2019년 55건(광주 41건·전남 14건), 2020년 77건(광주 57건·전남 20건), 지난해 99건(광주 76건·전남 23건) 등으로 2년 연속 증가 추세다.

1년 사이 주택연금 증도해지 건수가 28.6%(22건) 났 것이다.

당해연도 해지 건수를 유지 건수와 당해연도 신규 건수를 더해 해지 비율도 2년 연속 늘고 있다.

광주는 3.66%(2019년)→4.32%(2020년)→5.22%(2021년) 등으로 증가 추세이며, 전남도

2.92%(2019년)→3.34%(2020년)→3.35%(2021년) 등으로 늘었다.

올해 6월 말 기준 증도해지율은 광주 3.92%·전남 4.98%로, 같은 기간 전국 평균(3.07%)보다 높았다.

증도해지 사유로는 '시세차익 시험 등을 위한 주택 매매'가 가장 많았고, '상속 및 증여' '단순 변심' '자녀와의 세대 합가' 등 이유도 있었다.

김 의원은 "공사는 주택연금 해지 사유를 명확하게 파악하고, 제도 오해로 인해 가입자가 해지에서 손해를 입지 않도록 추가 상담 등 방지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백희준 기자 bhj@

## 한전, UAE 바라카 원전 3호기 전력 공급 개시

### 최초 송전망 연결 성공

한국전력은 아랍에미리트(UAE) 바라카 원전 3호기가 최초로 UAE 송전망 연결에 성공했다고 10일 밝혔다.

송전계통 연결은 발전소에서 생산된 전기를 송전선로를 통해 일반 가정과 산업 현장에 공급하는 것으로, 발전소에서 생산된 전력을 최초로 수요지에 공급하기 시작했다는 의미가 있다.

UAE원전 3호기는 지난달 22일 최초 임계(원자로 내에서 핵분열 반응이 일정하게 유지되는 상태로 최초로 원자로의 안정적인 가동이 시작되는 것을 의미)에 도달한 이후 약 2주 만에 송전 계통 연결에 성공한 것이다.

3호기는 향후 단계적인 출력 상승 시험, 성능보 증시험 등 남은 공정을 거쳐 수개월 안에 상업 운전에 착수할 예정이다.

앞서 UAE원전 1호기는 지난해 4월, 2호기는

올해 3월 상업 운전을 시작했다.

현재 건설 중인 4호기까지 모두 가동되면 UAE 전체 전력 수요의 25%를 담당하게 되며 이를 통해 UAE 정부가 추진하는 '2050 넷 제로(Net Zero) 탄소 저감 정책' 추진에도 중추적 역할을 하게 될 전망이다.

바라카 원전은 한국형 차세대 원전 APR1400 4기(총발전용량 5600MW)를 UAE 수도 아부다비에서 서쪽으로 270km 떨어진 바라카 지역에 건설하는 프로젝트다.

한전은 2009년 12월 이 사업을 수주해 2012년 7월 착공했다.

정승일 한전 사장은 "성공적인 송전계통 연결을 발판 삼아 3호기 상업운전을 적기에 달성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는 중"이라며 "UAE원전 사업의 의미있는 성과들을 바탕으로 추가적인 원전 수출에도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봄에 떠나는 그라운드를 넘어 **녹동-기문도 1시간20분**

# 거문도+백도

광주-녹동항 셔틀 주말 확정 / 평일, 20명 이상 출발

**당일투어** 1인 134,000원~

광주-녹동항 왕복 셔틀버스 포함  
녹동항 출발 왕복 쾌속선, 백도 유람선 관광  
중식 1회  
서도→거문항 수송 1회 포함

**1박2일 투어** 1인 214,000원~

광주-녹동항 왕복 셔틀버스 포함  
녹동항 출발 왕복 쾌속선, 백도 유람선 관광  
민박(4인1실) 1박, 식사 3회  
서도→거문항 수송 1회 포함

\*상기 여행요금은 평일 출발 기준 요금이며, 주말 출발시에는 요금이 인상됩니다. 광주-녹동항 셔틀버스는 기상 및 회사 사정에 따라 운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후원** 삼도해운, 플래티늄    **승선문의** 061-834-3434    **예약센터**    **메이투어** : 062-385-0515    **투어나우** : 062-575-8019

## 광주보청기 난청센터

# 보청기

## 무료체험

**직접 체험 후 결정!!**

- ✓ **잡음없이 깨끗한 소리**
- ✓ **윙윙~ 울리지 않는 보청기**

**062)362-3336**  
광주 동구 대인동 183-2번지 (한미쇼핑사거리)